

광산구, 문화유산한마당 '마한의 불 피우다' 개최

24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서 체험·공연·전시 등 다채 '마한광산 선포식'도... 오늘 오후 2시 온라인서 사전예약

광주 광산구가 마한의 역사와 연계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인 '문화유산한마당'을 개최한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24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산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전체를 한 곳에 모은 '광

산구 문화유산 한마당'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일대에서 문화재를 향유하는 '문화재 활용 1번지'로의 도약과 함께 광산구 신창동 유적 마한의 대표 유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신창동 유적 맞춤형으로 선보이는 '화려광산존', 마한의 대표 유적을 활용하는 '마한광산존', 상시 체험 및 개별 문화재 안내를 위한 '모두광산존', 섬과 휴식을 위한 '섬터존' 등 4개 부문으로 꾸며진다.

'화려광산존'은 신창동에서 출토된 현악기 오토마타 체험 '시인의 사계', 장덕동 근대한옥의 고인돌 이야기를 들려 줄 '고택의 사계',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항의 우정을 다룬 연극 '월봉 로맨스',

고려시대 어의 체험 '사전약방문' 등 체험과 공연을 선보인다.

'마한광산존'에서는 마한의 생활상을 유쾌한 체험과 유익한 교육으로 만날 수 있다. 활비비 체험, 목공 체험, 토제 목걸이 만들기, 바비큐 음식 체험, 토기 사용 시연과 더불어 유물 모형을 관찰하고 토론하는 교육 프로그램 '상상 속 신창동 마을 여행'을 운영한다.

'모두광산존'에서는 현장 방문객을 위한 상시 체험과 문화재 개별 정보 등을 제

공한다. 조선 선비의 유생복을 입고 전각을 새기는 '선비의 하루',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부채 만들기, 커피 전동차 체험인 '다시 茶時 카페', 용아생가 스탬프북 만들기, 장덕동 근대한옥 팝업북 만들기, 무양서원 '페이퍼 토이(종이 장난감)' 체험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빛고를 영무 농악의 흥겨운 무대로 '마한광산 선포식'도 개최된다.

현재의 광주를 만든 기원인 고대 마

한이 남긴 신창동 유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자리로, 이를 상징하는 '마한의 불'을 지피는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마한광산 선포를 계기로 아시아 최대 농경 복합 유적지인 신창동 마한 유적지를 정비하고, 마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차별화된 '마한광산' 브랜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월봉서원 누리집(www.wolbong.org) 또는 광산구 관광육성과(062-960-88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19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이육근기자



북구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성료' 지난 17일 광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문인 북구청장과 노효경 가족센터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날 어울림한마당 축제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광주북구 제공>

북구, 청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라이브커머스 사업' 참여 업체 1·2차 모집

광주 북구가 청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판로 지원에 나선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상품 홍보, 매출 증대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기엔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북구는 민생경제 회복기금 7천600만원을 투입,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제품 홍보 콘셉트, 쇼호스트 섭외, 방송 제작과 송출 등 라이브커머스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업체는 1개월간 마을버스 외부 광고판 홍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상품 판매가 가능한 업체다.

북구는 1차로 오는 28일까지 15개 업체를, 2차로 8월1-21일 20개 업체를 모집하며 자격요건, 상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1차 선정업체는 오는 30일, 2차 선정업체는 8월30일 각각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이메일(oc_ear001@korea.kr)로 접수하거나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소상공인지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태호기자

동구형 '주거 편의' 통합돌봄 호응

광주 동구는 18일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상자 맞춤형 '주거 편의'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주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지원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주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거 편의 사업은 동구지역 자활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해 ▲간단 수리 ▲대청소 ▲방역·방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 접수 후 가정 방문을 통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다. /안태호기자

남구, 경제 이끄는 '산업도시' 발돋움

국가산단 연구기관·강소기업 앞다퉀 동지 틀어 지방산단 올해 말 완공·기업체 32곳 계약 완료

광주 남구가 대촌지역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에너지 신산업을 기반으로 광주경제를 이끄는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남구는 18일 "국가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단지 코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연말에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했고, 광주경제자유구역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구정에서는 컨설팅과 인-허

가 업무 등을 윈스톱으로 처리하면서 투자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에너지 신산업 핵심코어로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와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본부, 에너지 강소기업인 인셀루가 입주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전남대 산협력단 R&D 클러스트가 줄줄이 입주하며, 분양 계약을 맺은 LS일렉트릭과 ㈜호그린 에어도 시기를 검토 중이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

지로, 조성 공사는 올해 연말에 완료된다. 현 공정률은 98% 수준으로 부지 조성은 마친 상황이고, 조경 및 도로 공사 등을 남겨둔 상태다.

에너지밸리에 동지를 틀고자 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어 현재 기업체 32곳에서 토지 분양 계약을 맺었으며 ▲태양광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자동차 ▲연구개발 업종의 기업체다.

또 기존의 낡고 오래된 송암 산업단지 1곳만 있던 남구는 신규 산업단지 2곳이 동시에 조성되면서 광주 경제를 선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는 기업들의 신규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사람들이 물리는 만큼 관내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성학기자

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

오는 28일까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추진상황 점검

광주 서구는 18일 "오는 28일까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사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통해 서구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논의하고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원 방안,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 ▲통합 사례관리 수행 현황 ▲찾아가는

방문 상담 실적 확인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세부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동간 업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동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구와동이 소통하고 협력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서구' 실현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태영기자



<h2 style="text-align: center;">상무지구 상가 (매매)</h2> <p style="text-align: center;">▶ 중심 상업지구</p> <p style="text-align: center;">(6층, 7층) = 140평</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세 → 14억</p> <p style="text-align: center;">급매 6억8천</p> <p style="text-align: center;">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2 style="text-align: center;">장성토지 매매</h2> <p style="text-align: center;">▶ 장성호(댐) - 5분</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 - 20분</p> <p style="text-align: center;">토목공사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6m 도로접</p> <p style="text-align: center;">(100평, 150평, 200평 가능)</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 style="text-align: center;">*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style="text-align: center;">▶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p> <p>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p> <p>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p> <p>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p> <p>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p> <p>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5천</p> <p>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p> <p>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p> <p>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p>
<h1 style="font-size: 2em;">010-6670-9800</h1>		